

다산포럼

필리버스터, 정치에 대한 물음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최근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한국 의회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이 무제한 토론을 접한 국민들은 해당 법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위기에 빠졌고 국가안위가 왜 위태로워졌는지 알게 되었다. 보수정권 8년의 실정이 어떻게 극심한 양극화와 남북대결을 초래하여 이 나라를 위험국가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의사전행 방해가 그 목적인 필리버스터가 뜻하지 않게도 국민 일반을 위한 정치교양강좌가 된 셈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지만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그 중 하나

이다. 필리버스터가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가로막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비판은 서구에서도 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소수 의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때문에 2백 년 이상 존속되어 왔다. 이 유사 깊은 제도가 여야 간 협의와 조정이라는 의회의 기본 기능조차 무너진 한국의 현실에서 그 본분을 십이분 발휘한 것이다.

사실 의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굳이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정치 행동으로 선택될 이유가 없다. 가령 영국의회에서 입법 사항이나 정치 쟁점은 여야 의원들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 발언에는 저마다의 전문적 식견과 정치적 경륜이 풍겨나고 의회는 위트와 유머와 풍자가 수놓하는 말의 향연장이 된다. 그리고 이 현장은 시민에게 개방되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필리버스터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폭로한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드물게도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환기시켜 준 것이다. 영국의회가 토론과 타협의 모범적인 정치문화를 보여준다 해도, 과연 의회

에서의 합의가 한 국가의 정치 영역의 전 부일까? 애초 영국 의회제도의 축이라고 할 두 당파, 즉 토리와 휘그는 각각 토지 자본과 산업자본을 대표했고 대다수 민중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배제되었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민중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오랜 싸움의 과정이기도 했다. 데모크라시 즉 '민중의 지배'라는 그 본령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획득해 나가야 할 저항점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랑시에르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통상적 의미의 정치를 '치안'(治安)이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기성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진정한 '정치'와 구분한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하고 있어도 다수 민중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배제될 때 그것은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뜻과 어긋난다. 들리지 않고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굳어진 기득권구조를 변혁하려는 운동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고, 그것은 조정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불화를 전제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타협이 민중을 배신하는 아합이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랑시에르가 말하는 진정한 정치는커녕 치안 즉 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조차 일방적이거나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다. 대화와 토론이 부재하는 곳에서, 치안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은 대화를 해낼 능력 자체를 상실했고 정치의 부재를 추궁해야 할 언론은 '싸움만 일삼는 국회'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필리버스터는 바로 이 정치 부재의 현실 속에서 억눌려 오던 야당 의원들의 정치 욕망이 화산처럼 분출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들을 열정적으로 쏟아 놓았고 정치의 원뜻을 되새기며 그 회복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 혹은 민중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들과 함께 할 뜻을 토로하였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언론의 흡집 짙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는 우리 사회에 정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단에서

당신은 '기간제'가 아니라고요?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갑자기 정치인들 사이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시구가 많이 쓰인다. 봄 같은 좋은 시절이 왔으나 마음이 편치 않고 차가운 겨울 같다는 뜻이다. 원래는 절세미인이 떠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였는데 이합집산과 패거리 나누기를 거듭하고 있는 정치꾼들이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그럴듯하게 미화하여 남발하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와 국민, 지역사회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겠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년 기간제인 국회의원이 그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살이가 언제나 봄같이 밝잖아고 아직 힘이 낭만만 가득하던가. 계절은 순리에 따라 춘래(春來)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

두 가지 불사춘(不似春)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이어도 불사춘일 때가 많다. 본인이 힘들면 지위 고하나 시절에 관계없이 불사춘이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기간제 교직원들 네 번이나 뽐냈다. 우리 학교가 새로 모시기 위해 공모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짝게는 6개월에서 1년간 함께 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결을 떠나 다른 학교 기간제로 가거나 아무 소식 없이 교단을 떠난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정규직으로 교단에 서기 어렵다는 말이다. 전국의 사범대 졸업생과 교직과목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 중에 정규 교사가 되는 비율은 채 10%가 되지 못하고, 형편이 나았던 교육대학교 졸업생들도 계속 누적되는 현실이다.

예전에는 학교 교실의 구성이 학생 책걸상과 교단, 교탁이었다. 교사가 되는 것을 교단에 서다 죽는 교편을 잡는다고 했고,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교단을 떠나다 또는 교편을 놓다고 표현했다. 교단은 교실에 있는 약 20cm 높이로 교사가 글자를 가르치는 나무 단상이다. 비록 교실 바닥과 교단의 높이는 한 뼘 정도의 차이지만 그 높이의 차이는 많은 것을 나

타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교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사용한 회초리 편(鞭)이다. 지금은 체벌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가르침을 받는 것을 지도 편달이라 하여 많이들 사용한 시절이 있었다. 이제 교실에서 교단과 교편이 사라지고, 스승의 의미도 희미해진 가운데 교탁만 남았다.

지난번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교탁 앞에서 한 교사의 수모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모두에게 크나큰 자괴감을 주었다. 교사의 머리를 두드리거나 침을 뱉으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였다는 말을 듣는 참담한 마음을 가늠 수 없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기간제 교사에게서도 애정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면 정말 이견 아니지 않는가.

매년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 교직원들 뽑는 일은 이제 연중행사처럼 되었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응모하는 분들이 많았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력서 경력라이나 자격증

도 칸이 부족할 정도로 다채롭고 여러 학교를 거쳤다. '이 정도면 정규직도 충분한데' 속으로 되뇌면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임용고사나 여타 채용 면접 때 차차례 심사를 해 봤지만 이런 아린 심정은 아니었다. 그저 좋은 분만 선발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탈락한 분들은 학원으로, 임용시험 준비로, 아니면 진로를 바꾸어 또다른 일자리로 인생 여정을 떠날 것이다. 정규직도 아닌 기간제마저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어둡고 침울한 심정을 달래가면서, 합격한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겠지만 근무할 짧은 기간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급년에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은 기간제 선생님들께는 더욱 따뜻하게 대할 생각이다. 봄과 함께 시작한 교단 생활이 불사춘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가 기간제다. 부귀영화가 온갖 생명체도 기간제다. 어느 직종에서 또는 어느 역할에서 시간의 장단이 있을 뿐. 짧은 기간과 조금 더 긴 기간제가 있을 뿐이다. 인간의 운명도 각자 다르게 정해진 기간제 아닌가.

기고

이월 초하루, '머슴의 날'을 아십니까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과거 '머슴의 날'은 조상들이 봄을 맞이하여 한 해 농사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일꾼들과 서로 함께 배불리 먹고 노는 날이었다. '머슴'이라는 단어 때문에 본래의 기능 보다는 다소 좋지 않은 어감을 주지만 이 날은 평소에 잘 대접받지 못했던 머슴이나 농부들이 대접 받음으로서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농사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나누는 날이었다. 고된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절에서 그들은 수확의 의지를 다지며 서로 베푸는 마음 따뜻한 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배려하는 조상들의 지혜, 그 안에서 흥겹게 새 출발을 다짐하는 머슴들.

서로 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러저는 '머슴의 날'을 우리 공직자의 생일처럼 여긴다면 칼바람이 서리는 3월, 국민의 머슴인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꽃이 만개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매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1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 다투어 해를 보러가는 등 새 출발의 의미를 다진다. 그러나 필자는 항상 1월 보다 3월이 더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을 갖는다. 아직 춥고 어수선한 겨울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1월보다 따뜻한 봄기운과 새학년 새부서 등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을 주는 3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한다.

어찌하면 3월을 새로운 시작의 기점으로 느끼는 이유는 나의 생일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는 음력 2월 1일(양력 3월 9일)은 나의 생일이다. 아니 우리 공직자들의 생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생일은 조금 특별하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에서 주어지는 녹봉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을 일컫어 흔히들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필자의 생일이, 아니 우리 공직자들의 생일이 음력 2월 1일 '머슴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하여 올해 4월에 실시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원 서접수결과 4120명 채용에 22만 여명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높은 꿈과 포부를 갖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지원자들은 취업의 어두운 그늘 아래, 뚜렷한 포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공직의 길 위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책임감이 나 자부심 보다는 안정과 안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 분야에 높은 자부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배 공직자들에게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가오는 4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들의 시즌이 돌아온다. 일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수많은 공시생들에게 공직에 먼저 몸을 담고 있는 선배로서, 머슴이 되고자 하는 당신들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청춘을 투자하여 곧 이뤄질 성과의 가치와 무게를 '머슴의 날'을 맞이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필자 본인을 비롯한 지금이 순간에도 수많은 업무와 씨름하고 있는 공직 동료들에게도 우리의 생일인 '머슴의 날'을 맞이하여 주어진 업무 해결에 더 급급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은 지금 어떤 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앞으로 자신의 분야에 가지고 있는 포부나 방향은 무엇인지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한다.

머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머슴'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춰야 가야 하는 머슴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社說

서서히 윤곽 드러나는 지역 총선 대진표

야권의 뒷받침 광주·전남에서 국민 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각축이 치열하다. 그야말로 혈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어느 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지역구 경선 결과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진다.

우선 더민주주는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 후보를 확정했다. 양향자(서울) 이용섭(광안) 후보의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 최대 경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갑과 후보가 각각 1명뿐인 동남 갑·을 선거구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는 신정훈·우윤근·이계호·김영록 의원 등 4명이 현역 단수공천됐다.

국민의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천정배(서울) 공동대표, 박주선(동남을) 최고위원이 지역구에서 단수공천됐다. 장병원(동남갑)·김동철(광산갑)·권은희(광산을) 의원 등 지역구 3곳과 서갑, 북갑·을 등 6곳에서는 경선

이 치러진다. 당초 서을 출마를 준비하다가 천 대표의 단수공천 움직임에 반발한 김하중 예비후보는 복출로 이동해 최경환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남 10개 선거구에서는 박지원·주승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여수갑, 순천,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해남·완도·진도 등 6곳은 경선 지역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경의 경우 국민 의당 김승남·황주홍 의원의 현역 대결 구도가 완성됐다. 무안·신안·영암에서는 광주 유일한 더민주 현역의원 출마자인 박해자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겨룬다.

장기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라공천 지역으로 일찌감치 정한 북갑과 후보가 각각 1명뿐인 동남 갑·을 선거구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는 신정훈·우윤근·이계호·김영록 의원 등 4명이 현역 단수공천됐다.

국민의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천정배(서울) 공동대표, 박주선(동남을) 최고위원이 지역구에서 단수공천됐다. 장병원(동남갑)·김동철(광산갑)·권은희(광산을) 의원 등 지역구 3곳과 서갑, 북갑·을 등 6곳에서는 경선

영호남 바다 다툼 전남 어민 피해 없도록

전남과 경남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싼 바다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대법원이 영·호남 도(道) 경계에 따라 해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했지만 경남도가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영역 다툼이 재개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여수 해역으로 넘어와 멀치잡이를 하다 기소된 경남 지역 어부들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1973년 발행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에 설정된 도(道) 경계를 넘어 전남 해역에서 이뤄진 경남 어선의 조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새로운 잣대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경남도는 "대법 판결대로 해상 경계가 확정되면 경남도, 남해군의 자치 권

한이 침해된다"며 대법원 기준에 비해 자신의 해역이 크게 확대되는 1982년 이전 수산자원보호령 경계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여수 등 지역 어민들의 활동 범위는 크게 줄어들어 멀치잡이 어선은 물론 통발, 자망, 유자망 어업 등 전남 연근해 어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경남도 역시 지역 어민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었겠지만 전남도와 지역민들은 경남이 억지 해역에서 이뤄진 경남 어선의 조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새로운 잣대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경남도는 "대법 판결대로 해상 경계가 확정되면 경남도, 남해군의 자치 권

無等鼓

산길을 오르다 보면 그 어느 산에서든 으레 돌 '피라미드'와 마주치게 된다. 등산객들이 숨 가쁘게 산행을 하다 팍팍한 다리를 두드리고 숨을 고르며 쉬는 동안 하나 둘 쌓은 돌무더기이다. 길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작은 돌들이 원추형을 이룬다. 타인이 쌓은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신의 돌을 그 위에 올린다. 돌에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 등 등산객의 소원이 하나씩 새겨 있다.

예전에는 서낭당 고개에 돌무더기가 있었고 주민들은 고개를 넘다 쉬어 가며 돌을

5·18 돌탑

던 그 역사에 새로운 고두보가 놓이게 될 때까지 서낭당에 쌓이는 돌은 자주 높아만 갈 것이다." 돌탑은 산길이나 고갯마루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도 있었다. '방사탑'(防邪塔)이라고도 하는 돌탑은 풍수지리적으로 허(虛)한 곳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제주도의 경우 돌탑 속에 밥주걱이나 술을 묻어 두었다. 밥을 담듯 재물을 마을로 불러들이고, 무서운 불도 끄떡없이 이겨내듯 마을의 재난을 없애 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광주 망월동 5·18 단지로 갔다. 이처럼 돌을 쌓아 두는 풍습에 대해, 보편적인 민간신앙이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유사시에 마을을 지키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쨌든 돌 하나에 담긴 의미는 수백 년 전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았다. 이어령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등축도 없고 향불도 없고 예악(禮樂)조차 없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또한 재물도 바칠 것이 없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흙 문은 돌이나 주위 던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징검다리 같이 무수히 단절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